

거시재정금융간담회(4.1일) 모두말씀

- 지금부터 제 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 - 먼저, 바쁘신 중에 발걸음해 주신 두 분 장관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
 - 또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-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
 - 이에 예산·세제·금융·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(Policy mix)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

-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실물·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
 - 특히, 외환시장과 관련하여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,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 -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부터 국고채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됩니다.

- 어제 국회에서도 환율안정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
향후 국내시장복귀계좌(RIA)를 통한
해외증권투자 자금의 환류가 본격화되고
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증가하게 되면
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□ 중동전쟁 지속으로 취약계층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.

- 어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
신속하게 통과되고
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.
- 다행히 여야 합의로 추경 국회 일정이 빠르게 확정된만큼
모든 부처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.
- 또한,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
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
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□ 중동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에도
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.

- “최악의 상황”까지 염두에 두고
향후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
즉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- 앞으로도 저희 세 부처는
거시경제 수단을 관장하는 "원팀"으로서
매월 정기적으로, 또는 수시로 만나
지혜를 모으겠습니다.
- 중동전쟁과 같은 당면한 현안을 넘어서
양극화, 잠재성장률 하락 등
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하겠습니다.
- 이 자리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
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위한
최적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
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